

영암의 딸 유해란 “LPGA 신인왕 노려보아야죠”

퀵리파이 수석 합격하고 귀국...유력한 신인왕 후보 거론 “첫 1년 성적보다 적응 노력...계속 성장하는 선수 되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퀵리파이 시리즈에서 1위를 차지한 유해란(21)이 “한국에 와서 많은 분이 축하해주셔서 더 실감이 난다”고 ‘수석 합격’의 기쁜 소감을 전했다.

12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에서 끝난 LPGA 퀵리파이 시리즈를 1위로 마치고 13일 밤 귀국한 유해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20위 안에만 들자고 마음 편하게 갔는데, 수석으로 통과해 기쁘다”며 “그때는 딱히 1위를 했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분께서 축하해주셔서 더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LPGA 퀵리파이 시리즈는 2023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두고 100명이 8라운드를 통해 경쟁한 대회다.

이 대회를 1위로 마쳐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은 유해란은 2023시즌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사실상 전 경기 출전권을 손에 넣은 유해란은 내년 LPGA투어에서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해 안나리(26)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LPGA 퀵리파이 시리즈를 1위로 통과했다. 박세리, 최혜정, 김민경, 송아리, 그리고 2018년 이정은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7번째 수석 합격이다.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

왕 출신 유해란은 “국내 코스에서 정확한 샷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퀵리파이 시리즈에서도 아인 샷이 잘 돼서 버디 기회가 많이 났다”고 좋은 성적을 낸 비결을 설명했다.

2023시즌 LPGA 투어 데뷔를 앞둔 각오를 묻자 유해란은 “미국은 매 대회 코스 상태나 그린, 날씨가 달라진다고 들었다”며 “그런 부분을 배우면서 첫 1년은 성적보다 적응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벌써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인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그래도 신인으로 뛰는 시즌은 1년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신인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보완할 점에 대해 “항상 그린 주위 퍼트 등 쇼트 게임이 부족하다”며 “겨울 훈련 때 세이프 능력을 더 키우고, 내년엔 투어를 뛰면서도 많이 배워서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유해란은 “한국에서 땀 흘려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린다”며 “저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꾸준한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

영암 금정면 출신인 유해란은 일찍부터 두각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퀵리파이(Q)시리즈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해란(다올금융그룹)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드러냈다.

광주 송일중 2학년 때인 2015년 프랑스 에비앙 르뱅의 에비앙골프장에서 열린 ‘에비앙챔피언십 주니어컵’ 2관왕에 올랐다. 2014년 KLPGA 준회원 실기테스트 면제 특권을 획득한 데 이어 ‘2015년 광주시 골프협회장배 춘계학생골프대회’, ‘제 16회 광주시 교육감배 학생골프대회’, ‘제 26회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고향사랑도 남다르다. 지난해 고향사랑 성금 1000만원을 영암군에 기탁했고 2020년에는 영암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김수현 동 2 ‘번쩍’ 세계역도선수권 76kg급

김수현(27·부산시체육회)이 2022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김수현은 14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대회 여자 76kg급 경기에서 인상 108kg, 용상 137kg, 합계 245kg을 들었다.

인상에서는 4위에 머물렀지만, 용상에서 3위에 오르며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3위를 했다.

합계 기록만으로 순위를 가리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 3개 부문 모두 시상한다.

김수현은 2021 세계선수권에서는 합계 239kg(인상 105kg·용상 134kg)으로 5위에 그쳤다. 당시 대회에서 김수현은 용상에서만 동메달을 땀다.

그러나 올해는 기록을 끌어올리며 용상과 합계에서 메달 두 개를 수확했다.

이 체급에서는 사라 아메드(이집트)가 인상 113kg, 용상 148kg, 합계 261kg으로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마사 앤 로저스(미국)는 인상 109kg, 용상 138kg, 합계 247kg을 들어 은메달 3개를 얻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올 최고의 ‘2번 아이언’ 샷 주인공은 김주형

AP 선정...프레지던츠컵 18홀 234야드 샷으로 3m 붙여 버디

김주형(20)이 올해 가장 멋진 ‘2번 아이언’ 샷을 때린 선수로 뽑혔다.

미국 AP는 14일(한국시간) 올해 치러진 골프 대회에서 나온 14개 클럽별 최고의 샷을 선정했다.

김주형은 지난 9월 24일 프레지던츠컵 사할재 포블매치에서 이 대회의 최고의 장면을 연출했다.

김시우(27)와 짝을 이뤄 미국팀 주력 패트릭 캔틀레이-젠더 쇼플리와 맞선 김주형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234야드를 남기고 2번 아이언으로 때린 볼을 홀 3m 옆에 떨어뜨렸다.

두 팀은 17번 홀까지 비기고 있었다.

김주형은 버디 퍼트를 잡아넣고 클럽과 모자를 내놓이 치며 포효했다. 그리고선 김시우와 격한 포옹을 한 뒤 그라운드에서 지켜보던 인터넷서널 팀 동료들을 보고 환호했다.

김주형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귀중한 1승을 쟁긴 인터넷서널 팀도 김주형에게 달려가 일싸안고 기뻐했다.

프레지던츠컵에서 김주형을 최고 스타로 밀어 올린 장면이었다.

소니오픈 연장전에서 이글을 끌어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의 두 번째 샷은 지난 시즌 최고의 3번 우드 샷으로 선정됐다.

그는 18번 홀(파5)에서 티샷은 하이브리드로 때리고 두 번째 샷은 3번 우드로 그린을 공략했는데, 볼은 홀 1m 옆에 멈췄다.

마스터스 챔피언 스코티 셸러(미국)는 가장 빠른 3번 아이언샷을 날렸다.

마스터스 최종일 18번 홀(파4)에서 덤볼 속에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고 동료들을 향해 포효하는 김주형. /연합뉴스

서 3번 아이언을 때려 237야드 거리의 그린에 올려 우승을 확정했다.

4번 아이언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날린 샷이 뽑혔다. 그는 237야드를 남기고 4번 아이언으로 1m 이글 기회를 만들었다.

US오픈 최종일 15번 홀(파4)에서 날린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의 두 번째 샷은 최고의 5번 아이언 샷에 선정됐다.

225야드를 남기고 친 피츠패트릭의 두 번째 샷은 홀 4.5m 옆에 떨어졌고 버디로 연결됐다.

이밖에 제프 슈트리카(오스트리아)가 혼다 클래식 최종일 18번 홀(파4)에서 때 폭우 속에서 그린에 볼을 올린 6번 아이언샷과 조던 스피스(미국)가 페블비치 절벽 그라운드에서 날린 7번 아이언 샷, BMW 챔피언십 최종일 18번 홀(파4)에서 캔을 레이가 벙커에서 때려낸 그린에 적당한 8번 아이언 샷도 클럽별 최고의 샷으로 뽑혔다.

최고의 퍼트는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디오픈 마지막 날 17번 홀(파4)에서 그린 밖 40야드 거리에서 벙커를 피해 굴린 절묘한 샷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랑의 쌀 나누기.



영아동일시보호소 사랑의 기금 전달식.

KIA ‘나눔의 겨울’...사랑의 쌀 4000kg·성금 등 전달

‘호랑이 군단’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벌였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들이 14일 광주 북구 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 4000kg(20kg 200포대)을 전달했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과 함께 구단 후원업체인 키스코(대표 김원범)가 400만원을 후원해 마련했으며, 임동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장’ 김선빈과 이의리, 김

도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팬사인회도 진행했다.

앞서 KIA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올 시즌 적절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내야수 박찬호는 지난 9일 밝은안과21병원 김근오 원장 등과 함께 광주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올 시즌 나성범, 전상현, 정해영, 김도영, 최형우, 장현식 등이 수상한 밝은안과21병원 월간MVP 상급 중 일부를 직접해 마련한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낸 KIA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하면서 겨울을 보낸 뒤 오는 1월 30일 새로운 시즌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KIA 선수단은 3년 만에 재개되는 해외 전지훈련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행 비행기에 오른다. 2월 1일부터 훈련 일정에 돌입하는 KIA는 일본 오키나와를 2차 담급질 장소로 선택했다.

선수단은 애리조나에 이어 2월 27일부터 오키나와에서 2023시즌 청사진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배구 4경기 중 1경기 ‘5세트 혈투’

도로공사·인삼공사 최다 5회

중반에 접어든 여자 프로배구 레이스에서 5세트 경기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다.

2022-2023시즌 여자부 45경기를 치른 13일 현재, 5세트 혈투는 모두 12번 나왔다. 전체 경기수의 26.7%에 달한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13일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한국도로공사에 먼저 두 세트를 주고

내리 세 세트를 잡아 대역전을 거뒀다.

팀 별로는 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가 가장 많은 5번씩 5세트 경기를 벌여 나란히 2승 3패를 올렸다.

개막 12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를 달리는 현대건설이 최근 3경기 연속 5세트 혈전을 벌인 것도 시선을 끈다.

현대건설은 4번 치른 5세트 최후의 승부에서 모두 웃었다. GS칼텍스는 5세트를 4번 치러 1승 3

패에 머물렀다.

5세트 접전에서 이기는 팀은 승점 2를 얻고, 지는 팀도 승점 1을 가져간다.

5세트 끝장 경기가 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각 팀의 전력이 균등해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1위를 달린 현대건설도 이번 시즌에는 작년 이맘때와 다르게 고전하는 일이 잦다.

배구 팬들은 본전을 뽑을 수 있어 5세트 경기가 흥미롭다. 그러나 장기 레이스에서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해야 하는 각 팀 감독들은 피하고 싶은 5세트 경기가 나올 때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2관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3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4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5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6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9관	아바타: 물의 길, 압꾸정
7관 씨네키움	올빼미
8관 씨네키움	아바타: 물의 길,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압꾸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415-5403